

SAP, 국내 첫 데이터센터 건립

이성열 대표 기자간담회

‘SAP하나’ 출시 10주년
민감한 데이터 국내 안전 저장
“내년 2분기쯤 완공해 서비스”



이성열 SAP 코리아 대표이사가 SAP 하나 출시 1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센터 설립을 발표하고 있다. /SAP코리아

SAP가 국내에 첫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와 반도체 기업 등이 민감한 데이터를 국내에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성열 SAP 코리아 대표는 4일 고성능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SAP 하나(HANA)’ 출시 10주년을 맞이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SAP 코리아가 한국에 진출한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데이터센터를 설립한다”며 “내년 2분기쯤 완공해 고객들에게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AP는 별도 부지를 마련해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고, 아마존웹서비스(AWS) 리전에 임대 방식으로 입주할 예정이다. SAP는 전 세계 41개국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한국이 10번째다.

SAP의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총 2단계로 진행된다. SAP 코리아는 데이터센터 설립과 함께 오는 2021년 2분기까지 SAP 클라우드 플랫폼, SAP 분석 클라우드 및 SAP 하나 클라우드 솔루션을 국내 기업에 제공하고, 이어서

추가적인 SAP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BTP)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SAP BTP는 데이터베이스 및 데이터 관리 솔루션, 응용 프로그램 개발 및 통합 솔루션, 분석 솔루션 및 지능형 기술 등을 활용해 기업들이 데이터로부터 비즈니스 가치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대표는 “BTP를 통해 다양한 기업들이 BTP 위에서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하고 이를 앱스토어에 등록해 세계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애플 앱스토어처럼 기업 SW도 누구나 개발하고 거래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연말 매도압력, 평년 수준에 그칠 것”

>> 1면 ‘대주주 10억 유지 ...’서 계속

그러면서 “12월 개인 수급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이달 추가 조정을 만들 수 있는 수급 부담을 경감시키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수급 불확실성을 키워왔던 요인이 단번에 종결됐다는 설명이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대주주 선정을 우려했던 개인이 보유물량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연말 매도압력은 평년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년에는 증권거래세율도 기존보다 0.02%포인트(p) 낮은 0.23%로 변경된다”며 “과세 부담이 낮아진 상황에서 모든 투자주체의 거래 활성화까지 이끌 수 있기에 향후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금 회피를 목적인 대규모 매도 폭탄 우려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계절적

으로 나오는 순매도는 여전히 전망이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은 12월에 모두 순매도를 보이며 양대 주식시장에서 2조9414억원을 팔아 치웠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조5857억원, 2016년 1조5878억원, 2017년 5조1314억원, 2018년 1조5794억원, 2019년 4조8230억원을 기록했다.

2017년과 2019년 연말 순매도 규모가 유독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등으로 대주주 요인이 하향 조정된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에는 평균 수준에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도 10억 이상인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있고, 개인은 12월에 계절적으로 순매도하는 경향이 있어 시장을 크게 끌어올릴 이슈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송태호 기자 alvin@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우연 (511001-2*****) 2020.8.11 사망
최후주소 : 부산시 남구 용호로269번길 29, 102동 2305호

민법 제1032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 사건번호 : 2020년단201519 상속한정승인 (부산가정법원)
◎ 한정승인수리(심판결정)일 : 2020. 11. 2.
◎ 청구인 : 정홍민(720916-1*****)
◎ 공고기간 : 2020. 11. 5 ~ 2021. 1. 5.
◎ 신고처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31길 6-1, 102동 804호

2020. 11. 5.

공동성장 기업 성적표

어려울수록 함께 성장한 기업들 신한銀·SK하이닉스 산업 훈장

2020 동반성장주간 기념식
산업훈장 등 54점 유공자 포상
신한銀 진옥동행장 은탑산업훈장
수자원공사 20번째 자상한 기업



4일 열린 동반성장주간 기념식 행사에서 (왼쪽부터)신한은행 신연식 부행장, 박영선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김광옥 SK하이닉스 부사장, 유병욱 포스코 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한은행 진옥동 행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동반성장에 힘쓴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SK하이닉스 김광옥 부사장은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들의 제품 국산화 등 지원에 힘써 동반산업훈장을 받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중소기업부가 추진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 기업)에 20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친환경 중소기업 육성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올해로 17회째인 ‘2020 동반성장주간 기념식’ 행사를 열고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1점 등 총 54점의 유공자 포상을 수여했다.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금융권 최초 ‘자상한 기업’ 간판을 달고 중소기업 자발적 성장 생태계 구축에 힘써왔다.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인 ‘인센스타트업파크’에 669억원을 투자, 전용 펀드 운용을 통해 초기 창업기업들의 마중물 역할에 나섰다. 벤처펀드 조성을 위한 2000억원 출자, 스마트공장 특화대출 1500억원 지원 등 중소기업 금융지원에도 힘을 보탰다.

또 코로나19 피해기업들의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동네 응원프로그램,

희망의 도시락 캠페인 등 소상공인들과 상생에도 적극 나섰다. 자동차 부품기업을 위해 2130억원 규모의 금융도 지원했다.

SK하이닉스 김광옥 부사장은 국내 반도체 생태계 및 소재·부품·장비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을 받았다.

▲기술혁신기업 프로그램을 통한 국내 중소기업 발굴·육성 ▲중장기 국산화 전략 추진을 통한 소부장 기업의 성장기반 강화 ▲자금·기술·교육·채용지원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통한 협력사 경영안정 지원 ▲협력사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금결제 기간 단축 및 상생펀드 우선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포스코 유병욱 부사장은 산업포장을 받았다. 유 부사장은 하도급 상생결제를 최초로 시행했고, 해외 원료 공급사와 GEM 매칭 펀드를 조성해 상생협력 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주도했다. 아울러 현대제철과 철강상생협력펀드 1000억원을 조성해 거래

·미거래 기업에 저리 대출도 지원했다. 특히 이는 거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국내에서 첫 시도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수자원공사는 동반성장 주간을 맞아 ‘20호 자상한기업’으로 나서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와 ‘그린 뉴딜을 선도할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자원공사는 3년간 3400억원을 ‘그린 유니콘 육성’을 위한 투자, 창업, 기술개발제품 구매확대, 해외 동반진출, 성능시험장 구축 등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기존 거래기업간 상생협력을 넘어 자발적으로 상생하길 원하는 대기업을 협·단체와 연결하면서 많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 시대에 스마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동력인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B 실소유 판명난 다스... 中企 동반성장 평가 ‘낙제 수준’

이 전 대통령 동반위 직접 만들어
2015년 이후 5년 연속 ‘보통’ 등급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으로 판명난 다스(DAS)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서 5년간 사실상 ‘낙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재임시절인 2010년 만든 기구다.

동반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별 공정거래 평가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 체감도조사 등을 통해 전년도 동반성장지수를 이듬해 공표하고 있다. 지난 9월 발표한 동반성장지수가 지난해 수치다.

4일 동반위에 따르면 다스는 동반성장지수가 처음 공표된 2015년 당시 ‘보통’ 등급을 받은 이후 지난해까

지 5년 연속으로 ‘보통’에 머물렀다.

동반성장지수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나뉜다. ‘미흡’의 경우 공정거래협약에 아예 참여하지 않은 기업 등에게 부여하는 등급으로 사실상 ‘보통’을 받은 기업이 가장 낮은 수준에서 동반성장을 한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만든 동반위의 관련 평가에서 자신의 회사인 다스가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다스는 2014년 당시 처음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을 ‘매출액 순위 450대 기업’으로 늘리고, 중견기업과 대기업 1차 협력사로

확대하면서 현대·기아차 1차 협력사인 다스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4년의 경우 시범조사 대상이어서 실제 다스의 동반성장지수는 2015년 처음 언론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됐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7년 당시 4880억원(연결 기준)의 매출을 기록한 다스는 동반성장지수 대상에 포함되기 직전인 2013년엔 1조111억원을 기록하며 ‘매출 1조’를 넘었다.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에선 매출액이 1조2362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다스의 주요 주주는 이상은(47.26%), 권영미(23.6%), 기획재정부(19.91%), 김창대(4.2%), 재단법인 청계(5.03%)로 명시돼 있다. /김승호 기자